

光復軍 아리랑

작자 : 미상

1. 우리집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 주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2. 광풍이 분다네 광풍이 분다네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3.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광복군 실고서 오시는 배래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4.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등등 나더니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리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해설 :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독립군가로서, 광복군의 진취적 기상을 여실히 노래하고 있다. 특히 삼천만 조선인민대중의 소원이기도 한, 북소리 큰 울음 속에서 태극기 펄럭이며 광복군을 맞는 해방 조선을 그리는 것이 실로 장엄하다.

이 노래는 「밀양 아리랑」곡조에 맞추어서 주로 충남 아산 지방에서 불렀는데 특히 광복군들이 훈련의 휴식중에 즐겨 불렀다고 한다.

■ 시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2011 9*10

통권 59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 04 권두언 _
남북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학노

- 06 광복군 특집 I _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 김광재



- 12 광복군 특집 II _
국방개혁, 국군의 날 개정부터
| 표명렬

- 18 광복군 특집 III _
'역사(歷史)의 신(神)'을 믿은 '마지막 광복군'
- 고(故) 김준엽 전(前)고려대 총장님을 기리며-
| 이두엽



- 23 독립정신답사단 특집 _
사적지 강행군에도 씩씩했던 학생들
| 김삼웅

- 25 독립정신답사단 특집 _
신흥무관학교 답사기
| 이준식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덕훈, 류동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3 독립정신답사단 특집 _

화 보

| 편집부

41 독립정신답사단 특집 _

역사, 답사 그리고 상상력, 그 즐거움에 대하여

| 안흥기

45 영화읽기 _

영화 「아나의 아이들」, 어느 죽음들의 기록

| 이두희

48 문화읽기 _

세계지도를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돌려놓고 보라!

| 임재경

52 임정서가 _

역사를 쓰다, 황제의 특사 이준

| 편집부

54 독립정신 이모저모



남북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광복 66주년을 보내며...



이 학 노
민주당 사무부총장, 본지 편집위원

2011년 8월 15일 66회를 맞는 광복절에 즈음한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현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치밀하게 준비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지방정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고구려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의도의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영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영토문제와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것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의원단의 독도 방문을 위한 입국도 계산된 일련의 행동이다. 그것을 일본 내의 소수 우익단체 소속 의원들이 벌이는 정치 쇼로 치부하고 인식하는 것은 순진한 단견일 뿐이다. 일본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아 독도 영유권 주장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점입가경으로 국내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 일명 ‘독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잇단 일본의 망언과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 외교관이나 정부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경찰이 독도에 파견되어 있다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실효적 지배다. 그러나 군을 파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바꿔 말하면 경찰을 군으로 대체 배치하는 순간 국내 치안 유지가 아니라, 국내 문제에서 국제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며, 국제분쟁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처음부터 군이 주둔했다면 모르되 이제 와서 대체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제 분쟁지역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안보리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데 그러한 빌미를 주는 행동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관을 여러 명 배출한 국가이다. 경제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과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다름이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가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중자애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토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와 고유의 영토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내부의 분열로부터 온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남갈등이 계속되는 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해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응 또한 일사분란 할 수 없다.

남북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시련과 시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남북은 지금 즉시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 앞에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남북은 민족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온 몸을 불살랐던 선열들의 뜻은 8.15해방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다. 자력으로 해방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주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일제에 대항했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후손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업이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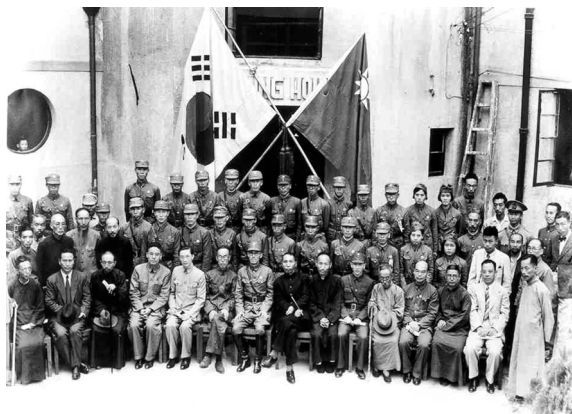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김 광 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창 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실천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0년 9월, 임시정부 산하에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 광복군 창설 기념사진

임시정부는 중경에 도착하기 1년쯤 전인 1939년 11월 서안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한편, 군대조직에 대한 중국 측의 양해와 재정지원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교섭하였다. 중국 안에서 군대를 편성하려면 중국당국의 양해를 얻어야 했고, 또 중국 측에 원조를 의뢰할 필요도 있었다.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던 김구는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 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광복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40년 5월 중국 측의 요청으로 김구는 광복군 편성에 대한 계획서를 중국 측에 제출하였으며 장개석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김구는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작업은 박찬익, 이청천 등이 맡았다.

총사령부가 구성되고 부대편성에 대한 방침이 수립된 후, 김구는 광복군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40년 9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 명의로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 창설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 광복군 제1지대 훈련모습

광복군 창설을 공포한 임시정부는 9월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식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직원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중국의 여러 인사들과 중경에 와 있던 각국 외교사절, 각 신문사 대표들도 초청되었다. 성황리에 성립식을 거행함으로써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창설과 임시정부의 건재함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 초모 및 선전활동

총사령부를 먼저 창설한 광복군의 최대 급선무는 병력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광복군이 존립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대표적 활동의 하나가 병력을 모으는 초모(모병)활동이었다.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1939년 11월 서안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여 화북일대에 이주해 온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전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모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로 징모분처를 설치하였다.

수원성 포두, 강서성 상요, 안휘성 부양에 각각 설치되었다. 또한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된 후 호북성 노하구와 절강성 금화에 각각 구대를 설치, 초모활동을 전개했다.

중국내 한인청년들에 대한 초모활동은 그 성과가 매우 컸다. 1944년 학병으로 중국전선에 끌려온 한인청년 수십명이 광복군 진영으로 탈출하였고 1945년에는 수백명의 한인청년이 임시정부 및 광복군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럼으로써 1940년 9월 창설 당시 수십명에 불과하던 광복군은 8·15 전후 7~800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모집된 인원들은 서안의 한국청년훈련반, 안휘성 임천의 한국광복훈련반에서 조금

군사간부 훈련을 이수하였다. 훈련 내용은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그동안 9개준승에 의해 중국의 삼민주의교육을 강요받던 광복군으로서는 대원들에게 한국독립운동사라든가 임시정부의 연혁 및 건국강령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광복군은 선전활동을 중시하였다. 특히 광복군은 국제방송을 통한 국제선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가 전시수도이자 각국 대사관이 모두 모여 있는 중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일본군에 대한 반일 전단을 살포하고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 인면전구공작대의 활동

광복군은 1943년에 들어서면서 연합군, 특히 영국군과 협동하여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1942년 겨울 인도주둔 영국군총사령부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측에 공작인원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때 총서기인 김원봉은 최성오, 주세민 등 2명을 인도에 파견하였다. 영국군은 일본군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을 필요로 했고, 그 인원을 민혁당측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3년 5월에는 민혁당이 버마전구 영국군 총지휘부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한영 합작은 광복군총사령부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1943년 9월에는 인도주둔 영국군의 대일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장 한지성 등 9명의 광복군 ‘인면(인도·버마)전구공작대’를 인도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우선 8월초부터 중국군사위원회에서 3주간에 걸쳐 군사교육 등 현지에 대한 예비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후 현지에 파견된 광복군 공작대는 일본군에 대한 선무공작, 후방지역의 교란, 일군포로의 심문, 노획한 문서의 번역 등 전쟁수행을 돕는 임무를 띠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본군과 접전하고 있는 최전선에 투입되었고, 주로 일본군을 향한 대적방송, 적문서번역, 전단제작, 포로심문 등을 담당하였다.

영국군에 배속된 공작대는 1944년 초부터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였던 임팔전투와 1945년에 전개된 버마 총반격전에 참여하였다.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일본군에게 심리적으론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나아가 영국군이 대일작전을 수행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의 공간을 확대하고 그 위상을 드높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 한미공동작전과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대일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임시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태평양전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합작은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1945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필리핀 점령, 특히 6월 말 오키나와 점령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은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태평양지역에서 북상하고 있는 미군에 파견하여 한반도 상륙작전시 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김구 주석은 미국정부에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하면 그곳에서 모든 한국인들을 지도하여 대일전에 협조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임시정부 및 광복군이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반일공동전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광복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을 통한 한반도 국내진입작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1945년에 들어와 광복군은 미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 전략첩보국)와 합작, 광복군을 훈련시켜 한반도에 일본에 투입하여 정보수집과 게릴라활동을 전개한다는 ‘독수리작전’ (The Eagle Project) 계획을 세우고 훈련에 들어갔다.



▲ OSS교관과 광복군 대원들

임시정부 및 중국전구 미군총사령부의 최종적인 승인하에 1945년 5월부터 서안 두곡의 광복군 제2지대에서 한미합작훈련이 시작되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한미합동지휘본부부를 설치하고 이범석과 싸전트가 양측의 지휘관으로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총사령부는 이범석에게 합작훈련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을 보냈다.

합작훈련 제1기 훈련생으로는 학병출신들과 기존의 제2지대 대원들에서 50명의 적격자들이 선발되었다. 주된 훈련내용은 장차 한반도에 침투해서 적의 중요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무전으로 중국으로 타전하기 위한 첩보훈련과 통신(무전)훈련이었다. 그 밖에 일본에 대한 심리전 기술, 연합군의 공중폭격이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상학교육도 강조되었다.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면서 50명 가운데 12명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하고 8월 초 38명이 약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수료하였다.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의 제1기생 훈련이 끝난 직후인 8월 5일, 김구·이청천·엄항섭 등 임시정부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된 시찰단은 서안에 가서 훈련생들을 사열하고 격려하였다. 8월 7일 김구는 마침 서안에 와 있던 위싱턴의 OSS 총책임자인 도노반과 한미공동작전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구와 도노반은 한미공동작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작전의 조속한 실행에 합의하였다. 김구는 회담 후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 지속적인 한미합작을 요청하였다. 8월 9일, 서안 일대에 일본이 곧 항복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날 밤 서안 두곡 제2지대 본부에서 이청천·이범석 등 광복군 수뇌부는 미군의 한반도 상륙시 광복군도 투입한다는 국내진입작전 계획을 제안하였다.

■ 광복과 국내정진대의 파견

광복군이 추진하였던 국내진입작전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미처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즉 8월 9일 서안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김구는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라고 탄식하였다. 김구의 탄식처럼 광복군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였지만 광복군은 한미공동작전 대원 및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한반도 진입을 서둘렀다. 그러나 정진군의 국내진입은 좌절되고 대신 해방 다음날인 8월 18일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정진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범석 지대장 이하 4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광복군 정진대는 OSS측 미군사절단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한국광복군 ‘정진대’의 임무는 임정과 광복군이 정식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내와 임시정부의 연락을 담당하며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8월 18일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한 광복군 정진대와 미군사절단은 일본군의 위협으로 다음날 8월 19일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 서안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즈음 한국이 중국전구 관할에서 태평양전구로 변경되고 미군이 곧 한반도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광복군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다시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군이 미국 OSS와 합작하여 한국 내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가 영국군과 합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즉 한국독

립운동의 활동범위 및 합작대상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또한 한국독립운동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 역사적 의의

광복군은 대한제국의 국군과 만주의 독립군을 계승하고, 30여 년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기반으로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맥락을 유지해나갈 민족의 자주독립군이었다고 하겠다. 광복군은 총사령부 성립식에서 발표된 「총사령부 성립보고」에서 “한국광복군은 일찌감치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곧 이어 성립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인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날이 광복군의 ‘창군일’이며 광복군이 대한제국 국군의 계승체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광복군의 창설은 만주 독립군의 맥락을 이은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창설을 “독립군의 투쟁역량을 좀 더 위대히 발휘하며 작전지휘를 좀 더 영민히 실시하기 위해 계통이 정연하고 조직이 엄밀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독립군의 전투역량·작전·지휘·조직 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광복군이라는 얘기다.

광복군은 창설 당시 30여 명으로 출발한 이래 열악한 물적·인적 기반과 중국이라는 타국 영토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도 광복 전후 7~800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한 무장 세력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광복군의 발전은 임시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임시정부가 오늘날 높이 평가되게 되는 데는 광복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아시다시피 수립 초기를 제외하고는 침체상태에 빠져 있었던 임시정부가 중경에 도착한 후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데는 광복군이라는 무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광복군은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대일전쟁을 전개함으로써, 전후에 교전단체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광복군이 인도·버마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대일작전을 수행한 것이나, 미국의 OSS와 합작하여 공동작전을 추진한 것은 그러한 시도였다. 이와 같이 광복군은 열강이 임시정부를 외면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한 것은 그것의 규모나 실현 여부를 떠나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자주적으로 쟁취하려는 자주적 독립의지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㉔

국방개혁, 국군의 날 개정부터



표 명 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필자가 연대작전장교를 하고 있던 47년 전의 일이다.

연대전투훈련시험(RCT)을 받기 위해서 전체 연대 병력이 완전무장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고갯길 중턱에서 앞뒤차가 충돌하는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병사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참 지난 후에 알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과오로 인한 사고였다. '차량 행군 표'를 잘못 작성 하달한 것이다. 차량이 고갯길을 올라갈 때에는 속도를 내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군속도를 엄격히 준수토록 강조, 오르막길에까지 교통통제소를 설치하여 사단 헌병대로 하여금 통과시간을 점검하도록 조치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분대장과 운전병은 영창에 들어갔고 소대장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연대본부의 이런 근본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았다. 줄임운전이니 선임탑승자의 감독소홀이니 하며 애꿎은 예하대만 호되게 책임 추궁 당했다.

최근 강화도 해병대 초소에서 해병 대원이 동료 대원을 조준 사살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타부대가 따를 수 없을 만큼 군기가 엄정하고 사기와 자

부심이 높아 우리 군의 최정예부대라는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모든 부대가 모본으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전투형의 부대가 크게 칭찬 받아온 터다. 이런 부대가 성폭행사건, 고참병에 의한 구타 사건 등 불상사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았고, 민항기를 향한 대공포 사격과 같은 군 기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겉보기에는 매우 강한 척 큰소리치며 주위에 겁까지 주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개명천지 정보화의 이 열린 시대에 이런 군대도 다 있단 말인가? 할 정도다. 이는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론과 군 당국은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조치 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들은 그대로 덮어둔 채 고작 인성검사 제도의 미비점 등의 문제를 들어 요란법석이다. 잘못된 병영문화의 현상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일선 지휘관의 지휘감독부족을 강하게 책망함으로서 책임은 늘 하급부대로만 떠넘겨졌다. 이렇게 병영생활을 직접 관장 지도하고 있는 하급 간부들만 탓할 뿐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늘 비켜왔다.

2005년 경기도 연천 전방초소(GP)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군 이대로는 안 된다.” “군대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군 당국은 잘못된 병영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의 여러 선언들을 늘어놓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선진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강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뼈아픈 사건을 교훈 삼아 군대가 확실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이나 예비역들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고동소리로 물어보라. “국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라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병들의 가슴속에 국군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군이 지향하는 비전을 공감 공유함으로서 보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신들만의 군대”라는 식으로 군에 대한 애착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를 정상화 함이 바로 군대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다. 과거 독재시대, 감옥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인성 파괴적 질서와 같은 고참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활달 유쾌하고 당당한 진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한다. 군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GP총기 사건 때도 조·중·동 등 반통일 수구 신문들은 전혀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엉뚱 무책임한 발상의 말장난으로 정부를 힐난 질책했다. 대북화해정책으로 인해 군이 대북적대의식 강화의 대적관 교육을 소홀이 함으로서 기강이 해이해져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때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그들 특유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군을 극렬하게 질타 몰아세웠다.

▣ 대북 적대의식 고취는 군 교육 아닌 정치교육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권 하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선점 주도하고 있는 거대 신문과 뉴 라이트 등 수구세력이 주장하고 주문해왔던 대로 북한을 필멸 붕괴시켜야할 철 천지원수로 찍어 증오하는 적개심 고취교육을 군에서는 소름끼치도록 철저히 실시해왔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해병대다. 그렇게 함으로서 과연 군 기강이 바로 세워졌는가? 진정으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적개심은 전장심리의 한 현상일 뿐이다. 군 정신교육의 내용이 아니다. 군 기강 확립이나 정신전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군사학의 기본 상식이다. 전투는 약에 받쳐 싸우는 개인이나 조폭끼리의 주먹다짐과 다르다. 집단 간에 무기를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사생결단 싸운다. 격한 증오감은 이성적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전투원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전승을 그르치게 작용할 수 있다. 고도의 정밀무기를 사용하는 미래 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군이 설정하여 정신교육하고 있는 군인 정신 6대 요소에도 명예 존중,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 등은 포함되어 있어도 ‘강한 적개심’은 없다. 이는 강력한 대북 적대를 주장함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친일극우 정치세력이 군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정치교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런 진실을 국민들이 차차 알아차리게 되어가자, 제목만 ‘주적론’에서 ‘대적관’ 교육이라고 그럴싸하게 바꾸어 “군인은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리고 적에 대해 강렬한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민족 분열과 영구분단 획책의 대북적대의식 고취의 세뇌 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가상적의 ‘적 전술’ 교육은 실시해도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하여 적개심을 고

취하는 그런 군대는 지구상에 없다. 전쟁이 발발된 후 비로소 적이 정해진다. 필자는 중위시절 월남전 소총중대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바 있지만 적개심고취 교육을 받거나 시킨바 없다. 미군들도 마찬가지다. 그때나 지금이나 월맹군과 베트남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적이 없다. 전투에 임해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만이다.

적대의식 고취는 일제 점령군이 조선인 출신 군인들에게 민족적 동정심이나 민족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했던 교육내용이다. 친일분자들이 자신들의 민족반역의 행각을 망각케 만들기 위해 그대로 인용 써먹어온 정치교육에 불과하다. 비록 동족상잔의 비극적 6.25전쟁을 겪었지만, 남북은 종교전쟁이나 족장시대의 적대적 부족처럼 사생결단 처 부서야 할 원수관계가 아니다. 북한은 민족적 화해와 애정의 정신으로 서로 보듬어 겨레의 소망인 통일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남북이 영구 분단되어 철천지원수 되기를 끝까지 바라며 북한괴멸을 주장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냉전과 민족분단 그리고 6.25전쟁은 친일역도들이 민족양심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일제가 독립 운동가들에게 '불온세력'의 딱지를 붙여 탄압 살육하던 간악한 방법 그대로 민족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무참히 학살하는 공포의 세상을 만들었다. 끊임없는 세뇌교육과 친일 수구언론의 상징조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가 마치 6.25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군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대북적대의식 증폭의 선전선동에 몰입함으로서 자신들의 매국적 친일 죄과를 덮어버리고 애국적 멸공투사로 둔갑시키려 안간힘 써왔다.

독립군과 광복군이 동토의 시베리아와 만주벌에서 일본군과 맞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군편에 서서 독립군에게 총질하던 친일매국노들이 우리 군을 완전 석권해버림으로서 항일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실종되어버렸다. 민족혼은 죽어 없어지고 민족정기가 끊겨져 민족적 자존심을 잃어버린 친일분자들만의 군대가 되었다.

군인은 전장에 나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살육을 즐기는 살인마적 잔인무도한 기질로 육성된다면 결국은 폐망하고 만다는 것은 전쟁



▲ 국군의 날 기념 양양 38선돌파 재현행사

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나의 생명을 바쳐 적의 생명을 노려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철학이 뚜렷해야한다.

인류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숭고한

목적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국방부가 ‘전투형의 군대’로 군을 개혁한다기에 우리 군의 망(亡)군적 병폐인 ‘정치형의 군대’를 탈피 개혁하겠다는 각오의 의미로 해석하고 싶었다. ‘정치형의 군대’란 군 고위 간부들이 오로지 진급에만 관심을 가져 정치권력에 이용당해 휘둘리는 그런 군대를 말한다. 정권의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하여 병사들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권위주의적인 군대를 말한다.

조국광복 후 지금까지 친일 사대주의 정권은 군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궁리 집착해 왔기 때문에 장병들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내가 이토록 고생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의 군대가 되었다. “과연 이래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장병들은 어느 나라 군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정도로 우수한 자질과 정당한 훈련 그리고 눈물 나도록 강인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전투에 임하게 되면 과연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장병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도록 철두철미 교육함으로써 장병들이 국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국군의 날은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설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국군의 생일날이다. 국군창설의 의의를 되새기며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고 찬사를 보내는 국군 최대 최고의 명절이다. 이날을 어떤 의미를 가진 날로 정하고 있느냐가 국군의 성격을 결정하여 장병 정신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 군대문화와 간부들의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족반역의 친일세력들은 이런 중차대한 의미의 국군의 날을 오로지 자신들의 매국적 친일행적을 없애고 적반하장 나라를 지킨 애국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왜곡 결정한 것이다.

6.25전쟁 중 육군 제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을 기념한다며 거의 친일분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결정했다. 이는 국군의 항일 민족자주 독립전쟁의 위대한 역사를 지워 없애기 위한 음모적 결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10월 1일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조인된 날(53년 10월 1일)이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에 국군의 정체성과 정체성이 깃든 것처럼 아직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방 분야는 친일사대주의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라 할 수 있다. 그토록 주장했음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조차 군 개혁의 핵심 과제인 이 문제를 왜 그냥 손 놓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 창설되어 세계만방에 선포했던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이 국군의 날 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광복군은 조국광복을 위해 항일무장투쟁 세력을 규합하여 대일 선전포고를 했으며 미얀마와 인도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국내진입작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도 갖추었던 국군의 효시다.

국군의 날 변경은 군 과거사 정리와 군대문화 개혁의 핵심 과제다.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찢기고 왜곡된 국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워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으로부터 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작업이다.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하여 국군의 실종된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복원하여 민족혼이 살아있고 민족정기가 바로선 자부심 넘치는 군대로 거듭나게 하자. (㉠)

‘역사(歷史)의 신(神)’을 믿은 ‘마지막 광복군’

— 고(故) 김준엽 전(前)고려대 총장님을 기리며—



이 두 엽(李杜燁)
본회의사,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 김준엽 (별세)
(사진제공 - 고려대 교우회)

선생님, 김준엽 선생님

지난 5월말, 비서실의 급한 연락을 받고 고대 안암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학과의 윤사순 명예교수, 나남 출판사 조상호 사장등이 지키고 있는 병실에서 선생님 손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 요즘도 전주에 있나?”

“주중(週中)에는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누워계신 선생님의 말씀을, 수십년을 모신 여비서가 귀기울여 듣고 ‘통역을 하듯이’ 옮겨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오래 있지 못하고,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6월 7일(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광복군’ 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한평생 겨레의 앞날을 밝힌 별이 졌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의 오롯한 의지(意志)로 91세의 생(生)을 마감하

시고 ‘거인(巨人)의 잠’에 드셨습니다. 구차하지 않게, ‘김준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표한 발걸음’으로 먼길을 가셨습니다



▲ 광복군 시절의 모습 (오른쪽부터 장준하, 김준엽, 노농서. 사진제공 - 고려대 교우회)

‘세 사람의 광복군’. 장준하, 김준엽, 노농서, 세분이 1945년 8월 20일 중국 산둥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 지식인의 표상을 새겨주는 사진입니다.

게이오 대학에 다니다 학병에 끌려간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6천리 길’을 걸어서 김구(金九)주석의 중경(重慶)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학병탈출 제 1호였습니다.

장준하 선생과 함께 돌베개를 같이 베며 “후손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말자.”고 6천리 장정(長征)길에 수없이 다짐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역사의(歷史)의 신(神)’을 믿으라. 정의와 선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선생님께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정부(政府)’였습니다. 후학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의 신(神)’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 정희천(鄭喜天)후배는 선생님께서 중국에 오시면 회사를 중역들에게 맡기고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모셨습니다. 정후배에게 제가 직접들은 일화입니다.

95년, 윤봉길 의사 의거지인 홍구공원에는 사쿠라꽃이 만발해있었습니다. 윤봉길의사의 호(號)가 매헌(梅軒)입니다. 그 ‘매헌정’ 앞에, 원래 ‘매화’가 심어져 있던 것을 어느 날부터 ‘사쿠라꽃’으로 바뀌어있던 것이지요. 정자안에는 부서진 의자들이 쌓여있었고 ‘의거’를 기념하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자 바깥에 약 20cm 크기의 돌출된 말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봉길 기의 현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해 총영사관 관계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반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노(怒)하셨습니다.

외사처 주임인 상해시 부시장급 인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설득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중국 측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 측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남북 어느 쪽의 정부가 아니다. 항일투쟁은 이념을 떠난 민족 공동전선이다.”

결국 사쿠라꽃을 베어내고, 제대로 된 비석을 세웠습니다. 김준엽식 조용한 외교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임시정부 청사복원, 광복지사 유해송환, 독립군 무장투쟁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 위해 노력하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중국 공산당 중요기관인 홍기(紅旗)출판사는 ‘중국의 벚’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헨리 키신저와 같은 중미수교의 주역을 포함하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을 기록한 공식자료 성격의 책입니다. 대각국사 의천(義天)을 비롯, 현대인물로는 김구 주석, 북의 김일성과 함께 김준엽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의 기여를 중국정부가 크게 우러른것이지요.

10여년 전의 송년 저녁식사가 기억납니다.

선생님의 책 장정(長征)에서 이름을 빌린 ‘한걸음회’에 저녁을 주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걸음회’는 출신 학과에 관계없이 선생님을 따르고 모시는 소모임입니다.

“오래묵은 숙제 하나를, 올해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아.”

10여 명의 회원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 했습니다.

“숙제라뇨?...”

선생님께서 10년에 걸쳐 중국 유명대학 11곳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셨다는 것을 그때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를 양성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앞날을 내다보신 ‘남모르는 실천’이셨습니다.

김우중, 구자경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선생님의 부탁에는 조용히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중국 유명대학 11곳에 우뚝 선 한국학 연구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선생님 개인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바르게 알기위해서는, 2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중국의 국가프로젝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요하문명론’을 적극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

려는 시도들도 모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요하문명론’에 전략적으로 포섭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을 포함한 동북지역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황제의 자손’들의 문명으로 묶어내려는 시도가 ‘요하문명론’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인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지향(志向)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문명사적 흐름’의 큰 틀에서 보되, 자(自)민족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이 세우신 11개의 ‘한국학 연구소’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과 중국의 상호이해를 위해 중요한 ‘초석(礎石)’이 될 것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선생님이 세우신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핵심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중심기지’였습니다. 인문사회과학분야 학문의 수준이 일천했던 시절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한국에는 유독 ‘아세아 문제 연구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세아 문제 연구소가 ‘고대의 아연(亞硯)’이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사전에 전공 교수들과 상의하여 해당분야의 연구 수준과 경향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 뒤, 무엇보다도 고대나 아니냐를 막론하고 국내외 최고의 교수들에게 해당주제의 프로젝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연구과제를 준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후배교수들의 회고입니다.

“자기학교, 자기동문, 자기학과, 자기연구, 시간재촉, 연구양산에 매몰된 오늘의 우리 학자들이 얼마나 비학문적이며 작은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는 김준엽 선생님의 운영원칙들이 아닐 수 없었다.”고 연세대 박명림 교수(정치학)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총장사퇴 반대시위’의 대상이셨습니다.

‘총장사퇴 촉구시위’가 빈번했던 나라에서 ‘총장사퇴 반대시위’는 단 1건(件)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김준엽 고려대총장입니다.

선생님은 시위학생들을 제적하라는 청와대의 명(命)을 거부했습니다. 온갖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문원보 사회과학원 사무국장은, 당시 제주도 출장지에서 있었던 ‘의문의 교통사고 사건’을 저에게 말해준적도 있습니다. 테러의 가능성마저 예감했던 살벌한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85년 2월 졸업식에서 있었던 총장사퇴반대 시위에 대하여, 선생님은 훗날 “학병 탈출때와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꼭 망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그때처럼, 군사독재정권이 꼭

망할것라고 확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자를 자르지 않는 것이 총장의 원칙과 책임이었을 뿐”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시절이 원칙과 책임을 지킬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생님께 국무총리직을 제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교육자다.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스승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후 이어진 정권에서 12번에 걸친 고위직 제의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별명이 ‘고사총리’ 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위직을 뿌리치는 교육자도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혼탁한 정상배와 모리배들의 세상에서 선생님께서는 항상 ‘늘 푸른 소나무’ 이셨습니다.

“아니 총장과 대통령 모두 프레지던트인데 어떻게 프레지던트를 하던 사람이 프레지던트 밑에서 장관을 하나? 그것도 바르지 못한 프레지던트 밑에서...”

파안대소 하며 넘기시는 ‘유모어’ 는 선생님의 전매특허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환하게 웃으며 피우시던 담배는 끝까지 결국 못 끊으셨지요?

선생님은 박정희 정권의 암살로 생(生)을 마감하신(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고(故) 장준하 선생님을 추억하실 때 잠시 창문을 내다보시곤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만드시고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사상계(思想界)는 독재정권과 맞서싸운 ‘시대의 횃불’ 이었습니다.

사회과학원을 세우시고 계간 ‘사상(思想)’ 을 창간하신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약주도 참 잘 드셨지요. 한사람 한사람, 가정사의 작은 일까지 소상히 기억하시고 토닥여주셨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한분의 ‘스승’ 을 간직하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생님을 생각하며 생각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

사적지 강행군에도 씩씩했던 학생들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제7기 독립정신답사단 부단장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만주 지역 고구려·발해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김부식의〈삼국사기〉를 1만 번 읽은 것보다 이곳을 한 번 답사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천장비사(天莊秘史)의 보고를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던가? 인재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 것이다.(...) 당지(當地)에 집안현의 일람이 김부식의〈고구려사〉를 만독(萬讀)함보다 낫다는 단안을 내리었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7차「독립정신」사적지 답사단과 함께 2011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 동안 만주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단재 선생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번 답사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혼과 열이 벤 현장을 찾는 길이어서 더욱 감회가 깊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날씨였지만 그 정도는 우리 일행에게 문제도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마다 이 행사를 있도록 하신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님과 간부들의 치밀한 준비에 경의를 표한다. 9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거의 차질이 없었다. 이미 7회에 이르는 동안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지만, 그럼에도 준비는 완벽에 가까웠다.

처음 참가자 워크숍을 할 때, 그리고 인천공항 출국 때에 만났던 학생들과, 며칠 동안 답사를 함께 하면서 지켜본 이들의 눈동자에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학과를 다닌 학생도 없지 않았지만 이공계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독립운동사나 신흥무관학교를 이해

하기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탐구열은 30℃가 넘는 햇볕보다 더 뜨거웠다. 사적지를 찾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인솔 강사진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했다.

일정은 대단히 장거리의 강행군이었다. 여순의 안중근·이회영·신채호 선생이 순국한 감옥으로부터 안의사 등이 재판을 받는 관동대법원을 시작으로 5시간이 소요되는 단동의 이룡양행 → 위화도와 황금평 등 최근 북한이 중국과 경제구역으로 지정한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과 신의주를 지켜보면서 우리 북방 경계선을 지났다. 환인으로 이동하여 오녀산성(졸본성) → 통화로 이동 → 신흥무관학교 옛 터인 삼원포 추가가 마을 → 집안 이동 → 광개토대왕비·장군총·5호분 5호묘·국내성터 → 송강하 이동 → 백두산 천문봉·장백폭포 → 연길 이동 → 대성중학교·운동주시비·명동교회·운동주생가 → 동경성 이동 → 상경용천부·홍릉사 → 목단강 이동 → 한중우의공원·김좌진장군 거주지 → 하얼빈 이동 → 안중근기념관 → 731부대 자료관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일행은 낮에는 사적지 방문, 밤에는 강의와 토론으로 보통 밤 늦게 호텔에 들고 새벽 일찍 출발했지만 모두 전 일정을 소화했다. 운도 따라서 세 번 올라가서 한 번 보기 어렵다는 천지가 학생들의 노고를 헤아리는 듯 활짝 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일은 731부대 자료관이 최근 일본의 압력때문인지 일제의 잔혹했던 만행의 자료가 대부분 교체된 것이다.

이번 사적지는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무장투쟁의 현장이 중심이었다. 그만큼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애국정신을 크게 고취시켰다고 하겠다. 학생들은 그토록 힘든 일정에서도 야간에 연습하여 3편의 연극을 공연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짧은 기간에 많은 곳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겠지만, 일정 전체가 너무 강행군이었다. 향후 다소 조정하고 심도 있는 관찰과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부족한 예산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숙소에 불이 켜지지 않거나 샤워시설이 안된 곳도 있었으며 식사도 몇 지역에서는 상태가 별로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풍찬노숙을 하면서 일제와 싸웠던 것에 비하면 호강이고 호사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터이다.

다음 해에는 여건이 된다면 조선의용군 유적지 태항산과 연안지역을 답사했으면 어떨까 한다.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한 지역을 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도 덜 알려지거나 조명이 안된 지역을 답사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사려된다. 조동걸 교수에 따르면 태항산과 연안은 중국의 혁명성지인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현지에서 강의 할 때에도 언급한 일이 있지만, 차기부터는 학생들을 선발한 뒤 출발에 앞서 답사지와 주요 인물·행적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했으면 한다. ㉞

신흥무관학교 답/사/기



이 준 식
연세대학교 교수,
제7기 독립정신답사단 부단장

2011년 7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독립정신 답사단의 일곱 번째 답사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만주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의 골간이던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답사지도 중국 동북지역으로 정해졌다.

먼저 밝혀 둘 일이 있다. 조선시대 이래 우리는 흔히 만주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동북(3성)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간도 곧 지금의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동만, 길림성의 북부와 흑룡강성 일대를 북만, 길림성의 서부와 요녕성 일대를 남만이라고 한다. 또는 압록강 북부 지역을 간도의 서쪽이라는 의미에서 서간도로 불렀고 두만강 북부 지역을 북간도로 부르기도 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라고 하는 길림성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독립군간부를 양성하는 무관학교를 목표로 했지만 일제의 탄압과 중국당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굳이 강습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후 통화현 합니하와 유하현 고산자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신흥중학으로도 불리고 신흥무관학교로도 불리었지만 정식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중요한 것은 강습소이든 중학이든 독립군간부 양성이라는 목표는 한결같았기

에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신흥무관학교로 통칭된다는 사실이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 나라 안팎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다. 여러 곳에서 전시회도 열렸고 얼마 전에는 신흥무관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중파 방송을 타기도 했다.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힌 존재였던 신흥무관학교가 되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 마음은 무거웠다. 한 달 전 다른 모임에서 신흥무관학교 답사여행을 다녀왔지만 본교 터가 있던 세 곳 어디에도 신흥무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물 하나 없고 정확히 어디에 교사가 세워졌는지조차 비정되지 않은 데 막막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못 흥분과 기대의 표정을 짓고 있는 답사단원들 특히 학생들에게 OECD 국가에 G20 국가인 대한민국이 독립 운동 유적지 하나 제대로 보존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민스러웠다.

신흥무관학교 본교는 모두 세 곳을 옮겨 다녔다. 처음 추가가에 세워졌지만 점차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넓은 곳을 찾아 합니하와 고산자로 옮겼다. 이 가운데 그나마 교사 터가 비정된 곳은 고산자 한 곳뿐이다. 추가가도 합니하도 정확히 교사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도 엇갈린다. 역사를 제때 정리하지 못한 여파가 이렇게 크다. 친일파가 해방 이후 다시 기득권을 누리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독립운동 유적지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졌고 독립운동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이번 답사의 첫 행선지인 여순감옥에서 단원들에게 안중근의 순국을 설명하면서 입감 장소와 처형 장소가 처음에는 잘못 비정되었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바로잡혔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여순감옥의 기념관에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지나간 일을 잊지 않으면 뒤에 있을 일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前事不忘 後事之師)”는 구절을 굳이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를 언급할 때면 즐겨 쓰는 이 말은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의 교훈으로 삼자는 뜻이니 독립정신 답사단의 취지와도 사뭇 부합하는 셈이었다.

답사 3일차인 7월 21일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 터 답사에 나섰다. 목표지는 신흥무관학교가 처음 세워진 유하현 추가가였다. 추가가는 유하시내에서 정남방향으로 4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추가가에서 서북방향으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유하현의 거점 가운데 하나인 삼원포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삼원포 추가가로 불리고는 했다.

지난 번 추가가에 갈 때는 유하시내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통화시내에서 출발하다보니 모든 게 낯설었다. 졸지에 추가가까지의 안내자가 된 나로서는 진땀이 나는 상황이었다.

결국 물어 물어 삼원포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추가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추가가의 지금 지명은 붉은 별 마을이라는 뜻의 홍성촌이다. 그야말로 중국다운 지명이다. 그런데 삼원포에서 홍성촌으로 질러가는 길이 보수공사중이어서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다. 가는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가에 도착한 뒤에도 모든 풍경이 생소했다. 결국 현지 주민들에게 옛날 학교터로 쓰이다가 지금은 공장으로 쓰이는 곳을 물어서 신흥무관학교 첫 터로 추정되는 곳에 도착했다.

시원찮은 안내 때문에 100여 명의 답사단이 땀별 아래 30여 분을 걸었는데 아무도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 세기 전에 이곳을 찾아왔던 선열들의 넋을 접하기라도 한 걸까? 지금은 조그마한 기와공장 부지로 쓰이는 곳이 옛 선열들이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고 신흥강습소를 개설한 곳이었다. 앞으로는 조그만 내가 흐르고 뒤로는 얇은 평지가 있는 데다가 다시 그 뒤로는 대고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근거지로는 안정맞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서 설립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의 이름은 특히 기억되어야 한다. 먼저 이견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의 여섯 형제가 있다. 이들은 유명한 이항복의 후손이었다.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으로 재력가이기도 했던 이들 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모든 기득권과 영예를 버리고 넷째인 이회영의 주도 아래 독립운동에 나섰다. 여기에 안동의 혁신유림인 이상룡, 김동삼, 김대락 등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전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회영 형제나 안동의 혁신유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열려고 결정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말의 비밀결사 신민회는 1910년 8월 강제병합을 전후해 이미 국내에서의 항일 투

쟁이 어려워졌으니 해외 특히 국내와 인접한 데다가 한인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독립운동을 벌이기 적합하다고 판단된 만주에 독립군기지와 무관학교를 세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회영이 만주현지를 사전답사한 끝에 서간도의 유하현을 적지로 고른 것이다. 유하현과 통화현 일대가 국경에 가까우면서도 압록강쪽이 험지이고 만주의 요지인 심양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일제와 중국당국의 감시를 덜 받으면서도 국내와 연락하기 좋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새로 개간할 땅도 풍부하고, 이미 어느 정도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군양성의 기반으로 삼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했다.

1911년 4월 삼원포 일대의 한인들은 대고산에서 군중대회를 열어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 기관을 세울 것을 결의했다. 형식적으로 신흥무관학교는 대고산 군중대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다. 곧 이회영 등 신민회의 지도층이 주도하고 서간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독립군의 골간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그리하여 신흥무관학교가 개교한 것은 1911년 5월 14일(양력으로는 6월 22일)이었다. 아직 교사도 채 마련되지 않아서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개교식이 열렸다고 한다. 한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모여 교사가 세워진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교사 주위에 이회영 형제 일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거처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도 집도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고산에 뭇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흥무관학교 시절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도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지금의 홍성촌은 그나마 중국인이 꽤 살고 있는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지만 이회영 형제 일가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었다고 한다. 추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거리라는 뜻의 추가가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이 사는 데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데 학교 터를 잡았다.

일제경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물색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위의 땅을 개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 추가가였던 셈이다.

이회영 형제의 모든 재산이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갔다. 이회영 형제가 만주로 망명하면서

마련한 자금은 약 40만 원이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6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 돈은 중국인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 이회영 형제 가운데 가장 부자이던 이석영이 1934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쳤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한 대표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회영 형제뿐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선열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은 나라와 겨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트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에는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교육비도 들지 않았고 숙식도 학교에서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학병농(學兵農) 일치의 생활을 했다.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근대 지식을 배우고 군사훈련을 받는 한편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다.

배우면서 일한다는 방침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교사를 세우고 사람들이 살 집을 짓는 일에 명문거족의 후예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한때는 대갓집 마나님이었던 여자들은 학생들을 위해 밥을 짓는가 하면 바느질과 빨래를 했다. 전근대적인 양반의식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회영이 망명 직전에 집안에서 거느리던 종들을 모두 자유민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남의 집 종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다는 일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선열들은 무력으로 독립을 되찾겠다는 목표에 더해 근대 국가에 필요한 평등의식까지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를 거친 학생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5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가 시절의 졸업생은 한 기에 40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더 넓은 부지를 갖춘 합니하로 다시 고산자로 옮길 때마다 재학생 수는 늘어났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이후 만주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의 골간이 되었다. 직접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 무



▲ 우당 이회영 선생



▲ 삼원포 추가가의 신흥강습소 터

장투쟁을 벌였고 그렇지 않으면 만주전역에 산재한 한인학교의 교사가 되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운 바를 바탕으로 독립군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기에 만주의 무장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답사의 강의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정리한 것처럼 신흥무관학교 이전의 무장투쟁은 신흥무관학교로 수렴했고 다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후 무장투쟁의 흐름이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에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 1992년까지 이어진 이 협상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북한과 일본이 교전관계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서 전개된 유격투쟁을 갖고 일본과 교전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교전관계가 식민지역사를 청산하는데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다. 북한과 일본은 김일성중심의 유격투쟁을 갖고 논란을 벌였지만 사실상 항일독립전쟁의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갈래도 다양했다. 이미 1920년에 독립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루었고 1930년대에도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독립전쟁론에 입각해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다. 독립전쟁론은 1907년에 결성된 신민회와 의병전쟁에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까지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야말로 독립전쟁의 토대가 마련되고 그것이 더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관과 졸업생은 1910년대 말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무장독립운동 단체이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에 참여해 주력을 이루었고 청산리대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0년대에도 대한통의부를 비롯해 이른바 만주3부라고 하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활동했고 3부통합운동이 결렬된 뒤에는 1930년대 초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벌인 일련의 전투에서 빛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관내로 들어가 독립전쟁의 전통을 이어갔고 일부는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1940년에 출범한 광복군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한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국군이 광복군이였다.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과 참모장 이범석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이었고, 지대장인 김원봉과 김학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였다. 곧 광복군 간부진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였던 것이다.

그러니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은 지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전통이 광복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은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뿌리는 광복군으로 그리고 다시 신흥무관학교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의 독립운동이 무장투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의열투쟁 단체이던 의열단의 설립을 주도한 것도 김원봉 등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였다. 설립자이거나 교관이던 이상룡, 김동삼, 이시영, 윤기섭, 박찬익 등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독립 운동의 맥을 이어갔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은 광복절이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되찾은 날이라고 국가기념일로 기린 지 벌써 60여 년도 훌쩍 더 지났다. 그런데 요즘 뉴라이트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간단하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정부 수립 곧 건국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참여했더라도 저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반공과 시장경제의 발전에서 어긋나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 일탈한 존재로 본다. 일제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해방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뉴라이트와 그 추종세력이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건국 이후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게 뭐가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립운동의 의의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의 황당한 주장은 최근 들어 큰 힘을 얻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한국방송공사가 최근 백선엽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선엽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간부 출신으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다큐멘터리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공영방송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제로 방송되는 것이 2011년 광복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글을 맺으며 신흥무관학교를 거쳐 간 선열들에게 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세상을 만드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자는 결의를 다시 다진다. ㉠



- 01-01 답사를 시작하는 비행기 안에서
- 01-02 첫 답사지 여순감옥 내부
- 01-03 여순감옥 전경
- 01-04 관동대법원 청사
- 01-05 끝 없는 벌판
- 01-06 답사단 발대식
- 01-07 이만열 단장님 특강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 02-01 압록강 철교의 모습
- 02-02 압록강 건너편의 북한 모습
- 02-03 압록강변에서 단체 사진
- 02-04 오녀산성 전망대에서
- 02-05 정상까지 힘든 오녀산성
- 02-06 김삼웅 부단장님의 특강
- 02-07 강의를 경청하는 학생들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 03-01 신흥무관학교 옛 터의 모습
- 03-02 설명하시는 이준식 교수님
- 03-03 신흥무관학교 옛 터에서 단체 사진
- 03-04 장군총의 모습
- 03-05 광개토왕비 앞에서 강의를하시는 이만열 단장님
- 03-06 광개토왕비 앞에서 단체 사진
- 03-07 돈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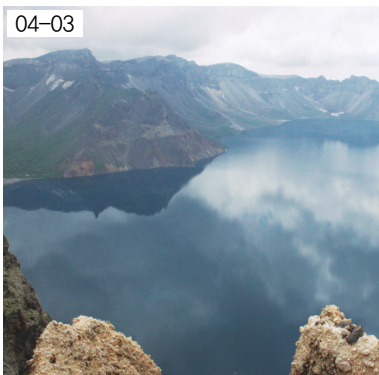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1 백두산 입구

04-02 백두산 천지 가는 길

04-03 백두산 천지 모습

04-04 장백폭포 앞에서 단체 사진

04-05 청산리 대첩 승전 기념비

04-06 순국선열계 목념



- 05-01 대성중학교 앞에서 단체 사진
- 05-02 태극기를 들고...
- 05-03 귀엽게 한 컷!
- 05-04 행진 모습
- 05-05 발해 석등의 모습
- 05-06 흥륜사 앞에서 한성훈 교수님
- 05-07 버스 안에서 힘찬 독립군가 부르기



- 06-01 답사 단장단 한컷!
- 06-02 이동 중 주제 발표
- 06-03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
- 06-04 누구 아이스크림이 맛있나?
- 06-05 시원하지?
- 06-06 높이 뛰어보자!
- 06-07 이만열 단장님과 함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1 으샤~!

07-02 카우보이 김삼웅 부단장님

07-03 우리 조 스케치북이 최고!

07-04 선남선녀?

07-05 이준식 부단장님 특강

07-06 열공열공!



08-01 답사단 해단식

08-02 연극공연

08-03 골든벨 최후의 1인

08-04 답사를 마치며...

08-05 수료증 들고 한컷!

08-06 마지막 날 731부대

08-07 하얼빈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역사, 답사 그리고 상상력, 그 즐거움에 대하여

안 홍 기 | 오마이뉴스 기자

“삼국사기를 100번 읽는 것보다 이곳에서 유적지를 돌아보는 게 낫다.”

단재 신채호가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둘러본 뒤 한 말이다. 고건축물 답사를 다닌 적은 있지만, 7기 독립정신답사단의 일원으로 역사 현장 답사를 처음 다녀 온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

이번 답사일정은 뽁뽁했다.

다롄(大連) - 단둥(丹東) - 환렌(桓仁) - 류허(柳河)현 쓰위안푸(三源浦) - 지안(集安) - 백두산 - 옌지(延吉) - 닝안(寧安) - 하이린(海林) - 하얼빈(哈爾濱)을 경로를 따라 역사의 현장에서 독립투사들의 삶을 곱씹어 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 ‘거대한 안중근’을 만나다

이번 답사의 시작점은 휘순감옥, 마무리는 하얼빈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거사를 일으킨 곳에서 마친 셈.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지만, 현장에선 새삼스런 의문점들이 샘솟았다.

러시아의 세력권이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이 다렌까지 압송돼 수감된 것, 일제가 뤼순감옥의 안중근을 특별대우 해서 집필활동을 하도록 한 것, 안중근을 죽인 장소는 아직 남아 있지만 아직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이유 등 각종 의문점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현장에서 떠오른 의문점은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말끔하게 풀렸다. 동승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역사지식이 일천하다는 걸 드러낼 뿐인 내 질문에 조목조목 답해주셨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다.

안중근의 의거가 당시 일본 뿐 아니라 세계에 미친 파급력, 안중근을 일개 파렴치범으로 조작하려 했던 일제의 회유, ‘안중근 구출작전’에 대한 두려움, 재판에서 안중근이 사형을 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일제의 꼼수, 죽어서도 독립정신의 상징이 될까 두려워했던 일제의 정황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책으로만 봤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안중근을 만나게 됐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권총사격을 했던 나는 안다. 권총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안중근은 권총사격을 얼마나 연습했길래 그 짧은 순간 쏘던 6발이 이토의 가슴과 일제의 관료들의 몸에 명중했을까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 보기도 했다. 한때는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했던 안중근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는 장면, 안중근이 우덕순·조도선·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역 주변을 다니며 이토가 도착할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는 장면, 권총을 숨긴 채 이토가 탄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걸 바라보는 안중근의 심장 고동소리 등 역사는 어느새 한편의 영화가 돼 가슴에 박혔다.

■ 외교권 박탈이 이렇게 큰일이었을 줄이야

간도지역 독립운동 탄압의 중심이었던 룡징시 옛 일본 간도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든 의문점은 ‘일본 영사관은 어떻게 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조선인을 체포·구금할 수 있었을까?’였다. 지금의 상식으로선 이해가 안되는 일.

해답은 ‘외교권 박탈’에 있었다. 고등학교때 ‘1905년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이라고 외우기만 했던 그 을사조약 때문이었다. 일제가 이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와 청나라가 맺은 간도협약 때문이었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이 있었던 간도지역에 대한 협상을 조선 대신 일제가 벌인 것은 이 ‘외교권 박탈’이 선행

됐기에 가능했다.

휴대용 확성기를 잡은 이준식 연세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1905년 을사조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친일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손쉽게 외교권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한반도 밖에서도 일제의 탄압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답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저 ‘1905년 외교권 박탈’이라고 외우기만 했을 을사조약. 수많은 조선인을 체포·고문했던 간도총영사관 앞에 서니 ‘을사조약’이 네 글자의 실질적인 의미와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 찢어지게 가난한 만주 생활, 난 할 수 있을까?

이번 답사가 더욱 의미 있는 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은 행사라는 점이다.

지린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 홍성촌(紅星村)은 도로 이정표에도 없었다. 현지 가이드도 다섯 번이나 차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물어 찾아간 이 깡촌 마을의 옛 이름은 추가가(鄒家街·찌우자)다.

건영·석영·철영·회영·시영·호영 등 이회영 일가 6형제 가족과 권속 60여 명은 1910년 12월 서울을 출발,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너, 단둥을 거쳐 1911년 2월 초순 이곳에 도착했다. 이상룡, 김대락, 황호 등 안동 일대의 혁신 유림과 지사들도 가족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넜다.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불리던 서울의 명문세가 형제들과 양반 중의 양반인 안동의 유림 집안이 새봄을 흑한의 서간도에서 맞기로 한 이유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경학사를 일구고 신흥강습소를 세웠고 훗날 신흥무관학교가 된 이 곳 졸업생들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세력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추가가 마을에서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룬 업적보다는 고초였다. 기록에는 이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한족들의 반발로 땅과 집을 구입하는 데 큰 애로를 겪은 것은 물론 마적떼의 습격까지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은 1913년 음력 10월 20일 새벽 습격한 마적떼에게 총을 맞아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안스카이와의 교분 덕분에 '만주왕'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석영은 신흥강습소 생도 2명과 함께 마적떼에 납치당하기도 했다.

이회영 일가를 비롯한 이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사나운 바람, 만주열과 같은 풍토병에 시달렸다. 이시영의 손자 남매는 수수밥을 먹다가 배탈이 나 사망했고, 형편이 나쁘지 않을 때에도 주식은 강냉이 밥이었다. 큰 재력을 가진 이유원의 양자로, 신흥무관학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이석영은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부지매입과 건축에 남은 가산을 다 쏟아부었다. 이석영은 1920년대부터 말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이회영이 일본경찰의 지독한 고문 끝에 옥사한 곳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형무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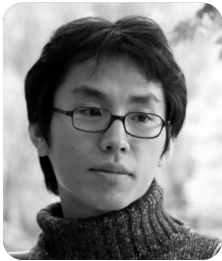
서울과 안동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존경을 받던 그들이 낯선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들의 배척을 받으며 '퐁구멍이 찢어지게'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겨울이면 혹한이 닥쳐오는 이 만주에서 나는 그들과 같은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제법 상상력이 풍부하다 자평하는 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선열들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다만 한 가지 상상은 가능했다. 지금의 재벌 가문, 유력 정치인, 고위 관료 중에서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이회영 형제와 안동의 혁신 유림들처럼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민족애를 실천할 이들은 얼마나 될까? 2011년 3월에 병무청이 집계한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은 24.1%로 일반인의 10배 수준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KBS의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7대 재벌가의 병역 면제 비율은 33%나 됐고, 30대 연령인 자의 면제율은 53%나 됐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 비판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동북 3성을 다니며 하루에 3~5시간씩밖에 못 자는 강행군이 이어졌고, 버스 안에 오래 앉아 여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게 되고, 상상력을 발휘해 그 시대 상황을 그려보는 것은 쉽진 않지만 즐거운 일이었다. 아직은 연부역강한 30대에 '답사의 재미'를 알도록 기회를 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린다. (9)

영화〈아나의 아이들〉, 어느 죽음들의 기록



이 두 희
자유기고가

다큐멘터리 영화 〈아나의 아이들 Arna's Children〉(2003)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도시 제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90년대 초 아나 메르카미스가 제닌의 난민촌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한 자유 극장을 열 무렵부터, 아나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고, 다시 수년 후 극장의 아이들을 찾아 되돌아온 아나의 아들이자 영화의 공동감독인 줄리아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려진 십여 년간의 시기에도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의 민중봉기 인티파다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었다.

영화는 줄리아노가 기억하는 어머니 아나의 생전 모습들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시민임에도 아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폭격으로 집이 무너진 난민촌의 아이들을 모아 자신의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친다. 어린이 극장의 첫 공연날, 무대의상을 받은 아이들의 들뜬 모습들 사이에서 아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또 그들이 무엇에 저항해야하는가를 말했다. 아나가 암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아들 줄리아노가 찾아와 자유 극장의 운영을 돕는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줄리아노 역시 제닌을 떠난다. 다시 줄리아노가 제닌에 돌아왔을 때는 제 2차 인



티파다 중으로 점령군과 무장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던 때였다.

제닌을 다시 찾은 줄리아노는 어린이 극장의 아이들을 찾는다. 그러나 영화는 줄리아노가 다시 찾은 ‘현재’의 제닌과 어른이 된 아이들로부터 끊임없이 ‘과거’의 자유극장과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지난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줄리아노는 수 년전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죽음들을 다시 대면하게 된다.

십여 년에 걸친 촬영 기록들에는 무대에 오른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부터, 수년 후 그들이 사는 세상을 막연하게나마 알게 된 소년들의 수줍음과 함께, 저항군으로서 돌격소총을 손에 들고 각자의 맹목적인 죽음으로 달려드는 얼굴들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영화 속 점령지에서의 생활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된다. 무너진 학교에 깔린 아이들과 자살 테러를 결심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조차 보일 수 없는 어머니들을 보게 된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과거와 현실을 함께 교차로 배치하는 몽타쥬 편집이 더욱 많아진다. 마치 지금은 버려진 폐건물이 된 소극장에서 줄리아노가 그곳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활기찬 얼굴들을 겹쳐보려는 것처럼, 그리고 자살 테

러를 감행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비디오 유언을 남기는 테러리스트의 비장함을 영화가 수년 전 팔레스타인의 로미오가 되고 싶다는 치기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것처럼 말이다. 차례차례 어린이 극장의 소년들이 쓰러져가는 현재를 영화는 묵묵히 따라간다.

하지만 그 아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임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팔레스타인 어머니의 모습이 며칠 후, 전사한 아들의 주검 앞에 오열하는 장면으로 바뀔 때, 우리는 문득 이 영화의 잔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죽음들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영화적 편집의 어떤 효과들 때문일까 아니면 아이들의 시간 속에서 이미 결정된 그 운명들 때문일까.



아마도 감독 줄리아노에게는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추억하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 중 한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을 계속 마주해나가면서 영화는 점차 계속되는 죽음을 이야기의 소재를 넘어 마치 영화 그 자체인 것처럼 스스로 변해간다. 혹은 영화가 사라지는 자리에 남을 것이 결국 죽음에 대한 기억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화 <아나의 아이들>의 어떤 이미지들은 확실히 죽음이라는 어떤 금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영화라는 예술 양식의, 그 사진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죽음과 관련한 두 가지의 다른 접근이 있었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사진적 이미지란 그 대상의 현존이 아니라 부재에 대한 증명으로서, 즉 지금은 더 이상 있지 않은 과거의 상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반면, 앙드레 바쟁에게 사진이란 조형 예술의 역사 속에서 현실의 재현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낸 것으로서, 곧 인간적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는 불멸을 향한 상상 속의 양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나의 아이들>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죽음들은 무엇들이었을까. 영화는 그들의 죽음과 사라짐을 너무나 명백하고 참담하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들이 살았던 삶과 그들을 바라보았던 누군가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이 증거하고 있다.

영화는 그 죽음을 끊임없이 현재화하면서 결코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되고, 다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그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현실이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계속된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해외 뉴스 단신에서는 줄리아노 메르 카미스 감독의 암살 사건 소식이 전해졌다. 영화를 완성한 후 다시 제넌으로 돌아가 자유 극장을 재건한 감독은 극장 앞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줄리아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인티파다는 문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자유 극장의 비전을 말했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인이자 이스라엘인이었고, 배우이자 감독이었으며, 정치 활동가이자 한 어머니의 아들,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고인에게 명복을 빈다.

참고로 <아나의 아이들>은 2004년 8회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서 작품 배급이 가능하다. (주)

세계지도를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돌려놓고 보라!



임 재 경
前 한겨레 신문부사장

일 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의 발발 시점(1936년)에 태어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소련군이 진주한 강원도에서 해방(1945년)을 맞았으며, 몇 해 뒤 월남하여 열다섯(중학교 2년)에 처참한 6.25전쟁을 당했다. 이승만 치하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전선에 배치되어 왕따를 당할 대로 당하며 지긋지긋한 그 군 복무(1957~59년)를 마친 경우가 필자다.

동갑내기 남자를 어림하여 25만 명으로 잡는다면 필자와 유사한 경험을 나눈 숫자는 몇 천으로 줄겠고,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1961년 신문기자(조선일보)를 시작한 사람을 추리면 스물 안팎이다. 거기다 군사독재 전두환의 폭압으로 해직당한 1936년생 언론인은 하나로 준다. 하지만 이런 희소가치 위주의 분류방식은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오해를 사기에 꼭 알맞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세대는 크게 보면 모두 냉전과 민족 분단의 고통과 설움을 체험했다.

그런데도 구차하게 개인의 과거사로 말문을 연 것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저널리즘을 업으로 삼게 된 자신의 시대적 불운을 지적하려는 뜻에서다. 근대사회의 기본 인권은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순서로 열거하는 게 보통이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행을 하지 못하는 저널리스트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지중해 동부 연안의 어느 도시(이스탄불로 해 두자)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세아를 거쳐 중국 시안(西安)에 이르는 험난한 ‘비단길’ (Silk Road)의 전 코스 답사는 함부로 입을 담을 일이 못된다. 단순하게 국제관계, 지역정세의 평온 여부, 그리고 여행자 모국의 정치 사회적 조건으로 가능성을 말하기도 힘들다. 아주 독한 여행 마니아를 제쳐놓고는 ‘비단길’의 중간 중간의 거점 한 두 곳을 방문한다는 것조차 몇 해 전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같은 일에 속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 비단길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앙아세아 우즈베키스탄의 유서 깊은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75세 생일을 보낸 행운을 누렸다. 실토하거니와 노년의 해외나들이는 무리라는 주변의 비아냥 섞인 충고가 들어맞아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 ‘오늘이 생일인가’를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고달팠다. 한 여름에는 빙수나 마시며 냉방 잘된 방에서 편안하게 TV 연속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상책이라 여기는 이들은 우즈베키스탄행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하다.

“

아주 독한 여행 마니아를 제쳐놓고는 ‘비단길’의 중간 중간의 거점 한 두 곳을 방문한다는 것조차 몇 해 전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룰 수 없는 꿈같은 일에 속했다. ”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듯이, 5박 6일의 우즈베키스탄 여행기를 초행인 필자가 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어리석고 때로는 정보 전달상의 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공항에서 시내를 가는 방법은 택시, 지하철, 버스, 그중 어느 쪽이 편하고 안전한가를 알기 위해서라면 관광 안내 책자가 유용하다. 그러나 현지의 풍물과 정경을 기억에 담는 일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며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을 가리켜 설명해 주는 여행 가이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그러므로 역시 백문불여일견이라 할 밖에 없다. 미리 공부를 조금하고 현지를 가보시라.

우리 일행 가운데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공항의 입국 수속을 밟으며 영어 알파벳이 아닌 러시아 알파벳(Russian Cyrillic)로 모든 안내판이 적혀있음을 보고 약간의 낭패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영어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한다는 이른바 ‘어원지(orange)’ 식 발상이 얼마나 억지인가를 확인한 셈이다.

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교 신앙생활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웅장한 모스크(이슬람사원) 앞에서 나는 유사한 느낌을 받았다. 모스크의 기본 건축재료가 왜 유럽의 가톨릭 성당들처럼 돌(대리석 혹은 화강암)이 아니고 벽돌이며, 더구나 표면 처리가 천연색의 모자이크 무늬 일색일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식 발상을 타기하는 나 자신 역시 넓은 의미의 ‘어쨌든’ 속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이를테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대리석 건물은 질 좋은 대리석이 이탈리아 북부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음을 왜 나는 잊었던 것일까.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모스크, 미나레트(첨탑), 돔(둥근 지붕)들이 초록이나 푸른 색깔을 바

탕으로 한 것은 유목을 생업으로 삼던 중앙아시아의 주민이 물과 초목을 찾아 평생 이주를 거듭하던 갈망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여행을 마칠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뇌리를 스쳤다.

“

무릇 여행은 나라 안이건 밖이건 단순히 경관과 풍물을 찾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길벗, 즉 여행의 말동무, 그리고 여행지의 맛있는 음식이 곁들일 때 보람과 즐거움이 더하는 법이다. 오늘 날의 해외여행에서 다소간의 쇼핑마저 백안시하는 언동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위선이 아닐까

”

흰 피부, 파란 눈동자, 뽀족하고 긴 콧날, ...영락없이 러시아계 여성을 짐작케 하는 여행 가이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방으로 편입되기 이전 240 여에 달했던 타슈켄트의 모스크 수가 80으로 줄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소비에트의 종교 탄압을 강조하는 설명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황인종이며 동양인인 나의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UNESCO 지정 문화유산 급에 속하는 건축물 앞에서는 ‘징기스칸이 파괴했으나 그후 복원했다’는 설명을 빼놓지 않고 반복했다.

사마르칸트의 티무르(Timur, 1336~1405, 터키계의 정복자로서 중앙아시아 전 판도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사마르칸트에 도읍을 정했음) 영묘(靈廟)를 구경할 때였다. 나는 가이드에게 지나가는 말투로 “여기는 징기스칸이 왜 파괴하지 아니했는가”라 물었다. 그녀는 즉각 받아 답하기를 “다행히 티무르가 죽기 전에 징기스칸이 먼저 죽었다”고 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중 그에게 다시 말을 걸어 ‘러시아인인가? 그리고 이슬람 신도인가?’ 물었다.

“러시아 인이 아니며 중앙아시아 여러 인종의 피가 모두 섞였고, 이슬람 신도이긴 하



지만 이슬람 계율을 엄격히 실행하지 않는 쪽(not practicing)”이라 했다.

‘비단길’이 유럽의 서남부와 아세아(중국 서북부)를 잇는 근대 이전의 원거리 교역 통로이며, 교역 품목은 중국산 비단과 차가 대표적인 것이어서 험난한 여행환경과는 생판 다른 어여쁜 이름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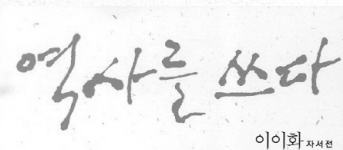
상업적인 관광상품(패키지 투어) 이름으로는 ‘비단길’이 손님 끌기에 단연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장장 1만km가 넘는 이 ‘비단길’에 그 통로를 품고 있는 광대한 지역의 인민이 빠져 있다. ‘빠져 있다’는 표현이 과장되었다면 ‘도외시’되었다고 고쳐도 무방하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The Orientalism)에 따르면 서구의 근대적 지역 연구, 특히 동방지역(오리엔트) 연구는 어떠한 문헌과 고고학적 발굴을 근거로 삼더라도 결국은 연구대상지역의 현존하는 인민의 부재(不在)를 양해하는 것이어서 허구라는 것이다. 구미제국 인문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어쭙지 않게 동방의 변방 일본이 오리엔탈리즘에 한몫 거들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되고 있거나 않은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무릇 여행은 나라 안이건 밖이건 단순히 경관과 풍물을 찾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길벗, 즉 여행의 말동무, 그리고 여행지의 맛있는 음식이 곁들일 때 보람과 즐거움이 더하는 법이다. 오늘 날의 해외여행에서 다소간의 쇼핑마저 백안시하는 언동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위선이 아닐까. 운 좋게 참여한 우즈베키스탄의 여행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도 후한 점수를 주어야겠다. 중앙아세아 특유의 향신료, 특히 속칭 ‘빈대풀’이 진하게 뿌려진 샐러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겨워졌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 늙은 몸뚱어리의 낡은 위장 탓일 게다. 여행을 조직한 김학민 <음식문화학교> 교장과 중앙 아세아 인문학에 통晓한 김필영 강남대학교 교수의 현실감과 경험이 주효한 것이다.

한 가지 유감은 1937년 연해주에 살던 조선 동포 수십만이 중앙아세아로 강제 이주 당했는데,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그 3-4세 후손들을 특별히 시간을 내 만나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세아의 고려인 문제는 한두 번 대면하는 것으로 그칠 과제가 아니므로 다음 기회의 여행이 이루어 질 때는 거기에 본격적으로 다가가야만 하겠다. 

역사를 쓰다 (한겨레 출판사)



∴ 당대의 역사가가 쓴, 너무나 진솔한 자서전

역사가가 쓴 자서전은 그리 많지 않다. 학계의 주류에 있던 이들이 화갑연이나 정년퇴임 등의 기념일에 맞춰 서둘러 출간하는 자기 중심적 서술로 일관한 책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오랜 집필 과정을 거친 진솔한 회고록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0년 강만길 선생의 『역사가의 시간』이 출간되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강만길 선생과 이이화 선생은 같은 진보학계의 진영에 있지만, 역사학자로서 성장한 내력은 판이하다. 강만길 선생은 기존의 보수적 역사학계

의 반대편에서 최초로 분단 시대의 역사학을 주창하고, 좌익계열의 독립운동 활동을 우리 독립운동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근현대사 연구의 큰 족적을 남겼지만, 선생 역시 기성학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면 이이화 선생은 고졸 학력에 제대로 된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웃사이더 중의 아웃사이더라 할 수 있다. 팔삭둥이 서자로 태어나 작은 키와 허약한 체질의 신체적 조건을 지닌 채, 전국의 고아원을 전전하며 공부의 꿈을 키웠다. 이이화 선생이 짊어진 삶의 조건은 대다수 국민들이 궁핍했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전후 시절을 감안하더라도 보잘 것 없었다. 하지만 주역의 대가 아버지 이달 선생에게 배운 한문 실력과 남다른 총기,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정으로 선생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역사가가 되었다. 당대의 역사가가 쓴 '자신의 역사'는 어떤 무늬를 빚을 것인가? 그는 '진솔함과 자기 과시의 차이'에서 긴장했다고 담담히 밝히지만, 이 책의 미덕은 단연 '진솔함'이다. 감추고 싶은 가족사, 남달리 혹독한 유년기 청년기를 거처온 신고의 세월을 선생은 진실하고 솔직하게 드러낸다. 때로는 철저히 못했던 정직성이나 민주운동 과정에서 한 발 뒤에 서 소심히 방관했던 부끄러움도 이 자서전에 담아냈다. (9)

황제의 특사-이준 (문이당)

❧ 대한제국 1세대 검사 이준의 대쪽 같은 검사 정신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이자 법률가였던 이준 열사. 그의 치열했던 49년 생애가 고스란히 담긴 『황제의 특사 이준』이 출간되었다.

공동 저자인 임무영 씨는 21년간 검사로 근무 중이며, 한영희 씨는 소설과 동화를 집필하고 있다. 두 사람은 부부로 이번 소설을 위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역사 자료들을 찾아내고 이준 열사의 행로를 좇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헤이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이준 열사 사후 100여 년 만에 그의 일생을 『황제의 특사 이준』이라는 소설로 진중히 구현해 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준 열사에 대해 고종의 명을 받고 헤이그에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정도밖에 모르는 듯하다. 조금 관심이 있는 경우 열사가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라고 알고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쓰려고 처음 마음먹은 이유는 이준 열사가 훌륭한 검찰 선배셨다는 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였지만, 공부할수록 열사가 단순히 검찰 선배에 그치지 않고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을 때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구국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분임을 알게 되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제7기 「독립정신」답사단



▲ 독립정신 답사단 단체사진 (윤동주 생가)

신흥무관학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제7기「독립정신」답사단(단장 : 이만열 前 숙명여대 교수)이 7월 19일(화)~25일(월)까지 6박7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대학생 72명, 일반인 23명으로 구성된 이번 답사단은 대련을 시작으로 단동, 삼원포, 백두산, 연길, 해림, 하얼빈 등 중국 동북지역의 무장투쟁지와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답사와 특강, 토론이 연속되는 강행군이었지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답사를 마쳤으며,

100년 전 나라를 위해 투쟁하신 선조들을 다시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귀국 후 제7기「독립정신」답사단원들은 8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경북 영천에서 독립정신MT를 가졌으며, 답사 이후 독립정신의 마음을 더욱 다지는 시간이었다.

「독립정신」산악회

2011년 8월 27일(토) 오전 11시「독립정신」산악회는 북한산 둘레길 산행을 하였다. 지난 7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제7기「독립정신」답사단 행사로 대체되었던 「독립정신」산악회는 오랜만에 회원들이 만나 산행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 특히 이번 산행은 지난 「독립정신」답사단 학생들이 참여하여 더욱 그 자리가 빛났다.

돌아오는 9월 산행은 9월 24일 설악산 백담사이

며, 집합 시간 및 장소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으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산악회 모임은 매달 홈페이지(www.kopogo.com)를 통해 공지가 나가고 있으며, 산을 사랑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7월, 8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7월	8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강만길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상윤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재	10,000	5,000
김동현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선군	10,000	10,000
김성곤	10,000	20,000
김성록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영림	30,000	90,000
김용덕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자동	100,000	100,000
김재철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김정욱		50,000
김종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류동연	5,000	5,000
류시경	30,000	30,000
민향선	20,000	10,000
박경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박두곤		20,000
박이영	10,000	10,000
박양수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의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박형순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회원명	7월	8월
변병식	200,000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찬	5,000	5,000
양인선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엄기남	50,000	50,000
엄승훈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오화수		80,000
우상호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유기수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유종하		20,000
윤경자	30,000	30,000
윤영소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두엽	20,000	2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상훈		10,000
이상배		10,000
이영국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현	100,000	10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인석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이창복	2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이학효	10,000	10,000
이학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해숙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임진택	5,000	5,000
장은기	20,000	20,000
장팔순	10,000	10,000
장 흥	20,000	20,000

회원명	7월	8월
전창일	20,000	20,000
정동익	30,000	
정만기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재경	10,000	10,000
정지완		20,000
정환기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조세현	20,000	20,000
조영빈		5,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화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차영조		20,000
천정배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병욱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최정식	3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승일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2011년 7월, 8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7월	8월
최기창	10,000	10,000

2011년 7월, 8월 특별회비

회원명	7월	8월
(주)오토 오디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2,000,000
김석두	200,000	
김자동		500,000
김선현		240,000
김원수		200,000
윤 우		50,000

◆ 입회원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이 후 이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